

소공인클러스터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시 창신 및 장위 의류봉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정영수*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Stage of Micro Manufacturers Clusters: Focused on Apparel Sewing Clusters in Changsin and Jangwi, Seoul, Korea

Young-Su Jung*

요약: 소공인클러스터의 지원정책은 소공인클러스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하지만, 유관기업의 통상적인 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비슷한 정책만 내놓고 있다. 소공인클러스터의 지역적 특성이 파악이 안 되므로 지원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공인클러스터의 특성을 클러스터의 특징인 국지화, 네트워킹/착근성, 혁신시너지/집단학습의 형성요소로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형성요소를 기반으로 발달단계를 적용해 보았다. 같은 업종이어도 지역적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울시 의류봉제업의 대표적인 클러스터인 창신지역과 장위지역의 소공인클러스터를 지역적 특성과 발달단계로 비교 연구하였다.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특성 분석 결과, 국지화에서 동종업체 집적은 창신지역이 장위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네트워킹/착근성에서 두 지역 모두 잘 형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혁신시너지/집단학습의 협업에서 창신지역은 디자이너 중심으로 장위지역은 소공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박람회 및 세미나 참여와 샘플 및 제작에 있어 창신지역은 적극적인 반면 장위지역은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두 형성요소로 살펴본 결과, 두 지역의 소공인클러스터의 발달단계는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경우 산업지구를 넘어 혁신지구로 진행되고 있고,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산업지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두 지역의 특성과 발달단계를 반영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주요어: 소공인클러스터, 의류봉제, 국지화, 네트워킹/착근성, 혁신시너지/집단학습

Abstract: The support policy of Micro manufacturers clusters should reflec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Micro manufacturers clusters, but only similar policies are proposed based on the normal collection of information from related companies. Since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Micro manufacturers clusters are not understood, they are not reflected in the support polic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Micro manufacturers clusters as the formation factors of localization, networking/embeddedness, and innovation synergy/collective learning which are the characteristics of clusters, and applied the development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공공정책전공 박사과정수료(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and Information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ys2213@hotmail.com)

stage based on the analyzed formation factors. Since regional characteristics may be different in the same industry, Micro manufacturers clusters in Changsin and Jangwi, which are representative clusters of apparel sewing industry in Seoul, were compared and studied in term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al stag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Apparel Sewing Micro manufacturers clusters, clusters of peers were found to be higher in Changsin than in Jangwi in localization. However, in the synergy and group learning, the Changsin area was mainly centered on designers and the Jangwi area was centered on Micro manufacturers, the Changsin area was active while the Jangwi area was passive in participating in fairs and seminars, and in sample and production.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two formation factors, the development stage of Micro manufacturers clusters in the two regions is progressing beyond the industrial district in the case of Micro manufacturers clusters in Changsin apparel sewing, and the Micro manufacturers clusters in the Jangwi apparel sewing are analyzed to stay in the industrial district. Innovative and long-established garment sewing clusters suggest that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need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stages of the two regions for sustainable growth.

Key Words : Micro manufacturer, apparel sewing, localization, networking/embeddedness, innovative synergy/collective learning

1. 서론

소공인은 소규모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기업체이다. 1970~80년대 산업화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공인들은 숙련된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의 전 분야에 활동하며, 생산과정의 주요 구성원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발전으로 인하여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던 소공인들은 사회적 관심과 국가의 지원정책 대상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5월 28일 제정하여 2015년 5월 29일부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매년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경영자금 대출지원 및 협동조합지원 사업, 분야별 집적지 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 지방정부 및 유관 공공기관 등을 통한 R&D 지원사업, 기술교육 및 판로개척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지원 규모나 예산, 실효성 등은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김철민, 정중영, 2016).

2019년 소공인 전용 지원예산을 살펴보면 4천 919억 원이다. 소공인특화자금지원에 4,500억 원, 소공인특화

센터 130억 원, 판로·기술지원 124억 원, 공동기반시설 구축 지원 115억 원, 복합지원센터 구축 50억 원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소공인 전용 지원예산 중 소공인특화자금지원이 4,500억 규모로 큰 규모처럼 보이지만 2018년 기준 소공인 업체 수가 약 36만 개 이상임을 감안하면 업체 당 약 122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판로·기술지원, 공동기반시설 구축 등 나머지 지원 정책도 전체 소공인을 생각하면 부족한 현실이다.

소공인들의 현재는 매우 불안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1970년부터 시작한 창업세대들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열악하고 힘든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 유입 또한 어려운 현실이다.¹⁾ 수십 년간 축적된 소공인의 기술들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으며, 적은 수의 종업원들로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 공장의 공정관리나 품질관리도 미흡한 형편이다.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신기술개발이나 판로개척, 마케팅 분야의 새로운 시도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에는 696개의 집적지에²⁾ 소공인들이 집적해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17). 소공인들이 모여 있는 집적지는 단순 집적지인 곳도 있지만, 소공인 간의 분업과 유관산업

집중, 다양한 네트워크의 형성 등 클러스터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소공인클러스터가 있다. 대표적인 소공인클러스터에는 소공인의 경쟁력과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서비스를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있다. 2013년부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전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2020년 1월 기준으로 31개소가 있으며, 서울시에는 7개소가 있다. 서울시의 7개소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류봉제가 3개소, 인쇄, 기계금속, 귀금속, 섬유제품 각각 1개소씩 있으며, 소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하고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

그러나, 소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은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이방인, 2019).³⁾ 소공인클러스터의 업종·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 중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도 비슷한 정책만을 진행하고 있어, 소공인클러스터의 소공인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왜 소공인클러스터에 지원하는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앞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소공인클러스터의 업종·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공인클러스터의 업종·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지원 대상인 소공인의 현실 이해 관점에서 지원정책의 수요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유관 기관에 의존한 통상적 정보 수집으로 지원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김정훈·성영홍, 2018).

소공인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정책을 위해서는 소공인클러스터의 업종·지역적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소공인클러스터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클러스터의 형성요소인 국지화, 네트워크, 착근성, 혁신시너지, 집단학습으로 보고 발달단계를 확인하고자 황주성(2000)의 연구와 Capello(1999)가 제시하고 있는 클러스터의 발전론적 모델을 결합한 분석틀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소공인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와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특성 및 발달단계를 확인하여, 소공인클러스터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소공인의 개념 및 특성

(1) 소공인의 개념

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으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24개 업종의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를 의미한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

우리나라 산업에서 소공인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뿌리산업, 부품 산업개, 식품 및 의류 등의 가공산업과 귀금속 및 공예품 등의 소비재 산업에서 주로 소규모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남윤형, 2013).

소공인은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공정분야에서 기초가 되며, 외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으나 중간제품과 최종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의 핵심이 되는 산업이다(조봉현, 2012). 또한, 자신의 일과 기능에 대해 긍지를 지니고 있고, 숙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기계나 도구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동업자들에게 강한 유대 의식을 가지고 있다(신혜원, 2007).

소공인에 관한 연구로는 조봉현(2012)은 소공인의 실태와 활성화를 위해 소공인 정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는 분리하여 소공인만을 위해 지원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양갑모(2013)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방식을 BI(Business Incubator)식인 창업보육센터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태환·윤병섭(2016)은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 환경 불확실성, 산업클러스터의 특성을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 효과로 인하여 경영성과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사례연구로는 김철민·김복현(2017)은 부산진구 범천동에 집적한 신발 소공인 산업의 실태조사와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윤정호 등(2018)은 문래 기계·금속 집적지의 소공인 기술혁신을 위한 협업모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철우(2011)는 대도시 도심 제조업 집적지의 형성과정과 존립기반을 대구시 수제화

소공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전체 산업의 소공인의 비중은 적지 않으나, 소공인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소공인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2018년을 기준으로 할 때 총 소공인 사업체 수는 367,899개로, 전체 국내 제조업체의 약 8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1,199,361명으로 전체 제조업 종사자 수의 약 29.2%를 차지하고 있다. 소공인과 제조업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보면, 사업체 수 측면에서는 제조업 전체 연평균 3.2%에 비해 소공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3.7%이며, 종사자 수 측면에서 제조업 전체 연평균 증가율은 2.3%인 반면 소공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4.8%로 우리나라의 고용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소공인의 특성

소공인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기반역할을 이루어 왔다. 소공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지역에 집적화를 이루고 있다. 소공인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에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소공인을 포함한 제조업이 도시에 집중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박진용·신승만, 2013). 일반적으로 대도시 제조업의 소공인들은 입지 요인으로

원자재 및 부자재의 구입이 용이하고, 교통과 통신이 편리한 이점으로, 제품의 운송이 손쉬우며, 제품의 판매처와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동종업체의 집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높으며, 노동력 확보가 타 지역보다 수월하며, 생산 인프라가 존재한다. 외부효과 획득, 집적 이익 발생으로 이어져, 타 산업과도 높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남윤형, 2013).

둘째,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진다. 소공인과 같은 소규모 제조업체들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소공인들은 숙련된 인력의 수급과 양성이 중요하며, 타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김철민·정중영, 2016).

셋째, 소공인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영세성을 가지고 있다. 정식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구두로 계약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수요가 한정적이다(소상공인정책연구소·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2016). 소공인별로 생산하는 제품의 전문화 현상은 수요의 편중을 발생시키게 되어 비수기를 유발한다(김철민·정중영, 2016).

넷째,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한다. 소공인들은 전문화되고 차별적인 제품 생산을 위해 주문생산 바탕으로 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객의 제품

표 1. 소공인 현황표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제조업 전체	소공인	소공인 비중	제조업 전체	소공인	소공인 비중
2010년	336,908	274,594	81.5%	3,422,439	822,853	24.0%
2011년	351,346	288,121	82.0%	3,625,989	874,591	24.1%
2012년	371,906	308,035	82.8%	3,718,188	940,394	25.3%
2013년	382,575	316,655	82.8%	3,825,678	966,050	25.3%
2014년	409,232	340,117	83.1%	3,981,938	1,056,120	26.5%
2015년	429,531	360,006	83.8%	4,085,911	1,125,047	27.5%
2016년	430,948	362,542	84.1%	4,097,338	1,160,622	28.3%
2017년	433,684	364,264	84.0%	4,103,986	1,186,832	28.9%
2018년	437,024	367,899	84.2%	4,105,870	1,199,361	29.2%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2010~2018년)에서 재편.가공

변경 요구 시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

(3) 소공인의 지원정책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소공인 특화 자금은 2012년부터 신설되어 지속적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⁴⁾ 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전국 31개 센터를 대상으로 130억 원), 판로 기술지원(124억 원), 공동기반시설 구축 지원(115억 원), 복합지원센터 구축(50억 원) 등 소공인에 특화된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소공인 지원을 위한 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혁신과의 소공인 지원실에서 소공인 예산 및 계획을 총괄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과 운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담당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주요기능과 역할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보 교육지원, 백년가게 육성사업, 홈쇼핑 입점 지원, 불공정거래피해 상담, 컨설팅, 고용보험료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소상공인자금, 협업활성화, 상권 정보, 프랜차이즈, 나들가게, 소공인 지원, 조사연구, 온누리상품권, 특성화 시장 육성, 청년상인 육성, 전통시장 안전관리, 각종 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전국 3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에서는 상호 정보교류와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컨설팅에서는 경영에 로(세무, 회계 등) 및 판매촉진(상품기획 등) 전문컨설팅, 공동사업, 판로개척 등에서는 문화·예술 협업을 통한 디자인개선, 공동구매, 공동관측, 공동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

2) 클러스터의 형성요소와 발달단계

(1) 클러스터의 형성요소

클러스터 이론은 산업집적지의 구조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클러스터란 특정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한 지역에 가까이 입지하여 서로 혜택을 누리는 현상으로 클러스터 내부에는 전문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보완재(complementary)를 생산하는 기업, 전문적인 교육·정보·연구 기술을 제공해주는 기관, 그리고 에이전시(agency)가 있고, 이들은 서로 긴밀한 연계를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Porter, 1998).

마이클 포터는 그의 저서 “국가의 경쟁우위”(Competitiveness Advantage of Nation)에서 제시한 다이아몬드 모델은 국가경쟁력 평가의 결정요인으로서 요소조건(Factor Conditions), 수요조건(Demand Conditions), 관련 및 지원 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그리고 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Firm Strategy, Structure & Rivalry)등의 4대 영역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생적 변수로서 우발적 요인에 의한 기회(Chance)와 정부(Government)의 정책을 들고 있다(Poter, 1990).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은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클러스터의 성공과 실패도 분석하고 있다.

클러스터에 입지하는 기업은 보다 낮은 거래비용으로 큰 국지적 수요를 증가시키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의 축적 등을 비롯한 다양한 외부효과 가능하며, 기업과 산업 간 보완성이 촉진되어 공동마케팅이 가능하다. 그 결과 지역의 평판과 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철우, 2011). 현대에 와서는 혁신클러스터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고,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성공적인 혁신을 위한 제도적 틀과 조정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혁신클러스터의 혁신발전경로 진행에 기술변화의 경로에 의한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남기범, 2004).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 분야의 상호 연관된 기업들과 기관의 지리적 집적체이며, 특정 산업 내의 가치사슬과 관련 산업간 상호유기적인 분업이나 협력관계를 맺고 일정 지역에 입주해 있다(최병훈·조현석, 2010). 사례연구로는 클러스터의 대표단지인 대덕밸리 IT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였다(황주성, 2004).

집적이 산업화시대에 주로 사용하던 개념이라면 클러스터는 정보화 시대에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업종 측면

에서 보면, 집적은 동일업종의 지리적 집적·연계를 강조하며, 기업이나 기관들과 지식의 흐름을 간과하고, 기업지원 체계를 고려하지 않으며, 집적 내의 활동 주체 간 공생을 위한 어떤 형태의 협력이나 신뢰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클러스터와 차이가 있다(Gordon, I & McCann, P, 2000).

Capello(1999)는 클러스터의 형성요인으로 국지화와 네트워킹, 착근성 및 제도적 집약, 혁신시너지, 집단학습 등을 주장함으로써 한 단계 더 나아간 발전된 연구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충분조건으로 클러스터의 형성수준 또는 발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황주성(2000)은 산업지구의 발전단계에 따라 다섯 가지 차원들의 형성되는 시점이 다를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을 Capello의 산업지구 발전모델과 결합 시켰다. 단순한 지리적 집적지역이 전문화지구(specialized area)가 되기 위해서는 유관산업이 집적되고 안정된 노동시장으로 인하여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고, 각종 거래비용 등이 감소되어야 국지화 차원이 형성될 수 있다. 전문화지구로 성장한 지역이 실질적인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후방 산업의 연계가 가능해야 하며, 기업 간의 조직적 근접성이 확보되는 등 네트워킹 차원이 형성되어야 한다. 기업과 사회 간 문화적 근접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비공식적 정보교류와 기업 간 신뢰 등 착근성과 제도적 집약 차원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산업지구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내려면 기업 간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위한 집단학습이나 기업 간 기술 인력의 이전 등을 통해 혁신시너지를 형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지구로 성장한 지역이 혁신지구(milieu innovation)가 되기 위해서는 집단학습의 활용을 통해서 혁신지원제도와 창업 지원제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5)는 클러스터의 형성 4대 조건으로 네트워크 조건, 인센티브 조건, 기업가정신 조건, 기술평가 및 이전 활성화 조건 등으로 제시하였다. 네트워크 조건으로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기관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형성

이고, 인센티브 조건은 혁신 주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업가정신 조건은 도전적 기업가정신이 필요하고, 기술평가 및 이전 활성화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기술평가 및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클러스터의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면, 클러스터의 특성의 형성요소는 국지화, 네트워킹, 착근성, 집단학습, 혁신시너지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지화는 동종 또는 유사한 기업들이 한 장소에 집적함으로써 얻어지는 외부경제효과를 강조한다(Marshall, 1890). 그 효과로는 집적지의 전문적인 기능, 집적으로 인한 숙련된 노동력, 전문화된 기계, 집적으로 인한 생산요소의 공동 활용과 고객과 공급자의 근접에 따른 거래비용의 감소가 나타난다. 안정적인 기업 간 연계와 노동시장의 형성시킴으로써 그 지역이 특정 부문에 있어 지속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이다(Capello, 1999). 네트워킹은 기업 간의 분업에 의하여 협력의 지속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연계관계는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생산, 판매, 연구, 정보, 정책 등 가치체인에 관련된 모든 활동 포함한다. 제품의 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협력관계, 정보교환 및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 창업과 신제품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사용자와 공급자 간의 지속적 협력 및 이동산업간 협력, 전문하청의 증가와 하청관계의 질적 변화 등이 있다(권선택·김상욱, 2006). 네트워킹은 주로 전략적 제휴, 합작투자와 하청관계 등으로 공식적 파트너십을 통한 계약관계에 기초한다. 그러나 클러스터의 형성요소로서의 네트워킹은 신뢰와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사회자본에 기초한 일종의 산업지역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osenfield, 1997). 착근성은 기업 간 관계가 사회적 구조 관계 속에 고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과 기업들의 관련된 다양한 연관조직의 존재와 이들이 해당지역의 사회관계 속에서 형성시킨 관습과 지배구조, 그리고 공동된 인식 등을 의미한다. 다양한 기능과 성격의 기업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명시적이나 암묵적 지식이 공동으로 형성되며, 기업과 기업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이 존재할 때, 높은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

등 협업을 진행할 때 큰 역할을 한다. 집단학습은 개별기업의 범위를 벗어나 혁신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공통된 지식을 창출하고 이전하는 기제로서, 산업지구 내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혁신을 촉진·개별적 혁신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지구에서는 중요하다(Capello, 1999). 대기업은 기업의 내적자원을 중요시하지만, 중소기업은 공동학습으로 인하여 발전하는 기대가 크다. 급진적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은 창조적 자원이 축적된 집단학습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과정 혁신을 지향하는 기업들은 기업내부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게 된다(이관률, 2005). 혁신시너지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제반 활동과 여건을 의미한다. 혁신시너지의 상승을 위해서는 내·외적 학습의 결과를 수익창출로 전환할 수 있는 개별기업의 내적능력이 중요하며,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려는 문화적·제도적 기반도 필수적이다(황주성, 2000). 혁신시너지의 주요 통로로는 창업과 기술개발을 통하여 발생하는 외부와의 협력이다.

(2) 클러스터의 발달단계

클러스터 발달단계에 대해 Braczyk와 Heidenreich는 Cooke(1998)의 모델을 토대로 다양한 지역혁신체계의 발전경로를 추적하여 지식 및 서비스 기반 경제, 기술 우수성과 산업클러스터 형성, 성숙 단계, 기술 분리 및 생산 등의 4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수의 경험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하여 종합하려는 경향이 있어,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기에 부족하였다. 조영석(2005)은 산업집적, 산업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혁신클러스터의 개념을 사용하여 발전단계를 공간집적도, 상호작용 범주와 제도화 수준으로 설명하였지만, 혁신주체 간 상호작용 패턴과 흐름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결여되었다.

Capello(1999)는 클러스터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집단 학습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론 및 실증연구에서 클러스터의 핵심요소와 수준을 개발함으로써 진화론적 발달단계로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산업지구의 진화단계를 가장 초기 단계인 단

순집적지에서 시작하여 전문화지구, 산업지구, 혁신지구, 학습지구로 구분하고 있다. Capello가 제시하는 단순집적지 이상의 전문화지구, 산업지구, 혁신지구, 학습지구가 여러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클러스터로 볼 수 있다. Capello의 클러스터 발전모형은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점차 진화하는 동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어 클러스터의 형성수준을 평가하는 모델로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자연발생적 단순집적지를 진정한 클러스터로 조성할 경우, 과연 그 지역이 산업지구의 발달단계 중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정책 방향과 수단을 결정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3) 의류봉제 클러스터

의류봉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 제조업에 속하며, 중분류 상으로는 봉제의복 제조업(141)이다. 세분류 상으로는 겹옷 제조업(1411), 속옷 및 잠옷 제조업(1412), 한복 제조업(1413), 기타봉제의복 제조업(1419)으로 구성된다(통계청, 2020).

의류봉제 클러스터의 특징은 노동집약적산업이고, 고용에 대한 흡수력이 높으며, 대규모 기계장비보다는 소규모인 재봉틀(미싱기)과 같은 장비로도 가능하여 소규모 기업에 적합하며,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생산) 또는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설계·개발의 생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B2B 영업인 경우가 많다(김주인 등, 2014).

의류봉제 클러스터의 생산 공정은 패턴→재단→재봉→정리→마무리의 작업 순이다(한구영, 2017). 패턴은 옷의 디자인과 신체 치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옷의 본을 제작하는 과정을 말한다. 재단은 옷을 만들기 위해 옷의 본을 준비된 원단 위에 놓고 자르는 과정을 말한다. 재봉은 재단된 원단을 재봉틀(미싱기)로 봉제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리 작업은 안감, 주머니, 단추 등 옷 제작에 필요한 부자재를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으로 현장에서는 마도메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마무리 작업은 다림질, 포장, 검수

등 옷의 끝손질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현장에서는 시아게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의류봉제 클러스터는 생산 공정의 분업화에 의해 그림 1과 같이 완결형 본공장, 본공장, 재봉하청공장, 정리(마도메)⁵⁾공장, 마무리(시아게)⁶⁾공장 등으로 구성된다(장미진, 2016). 완결형 본공장은 주문처나 디자이너에게 주문을 받아 패턴, 재단, 재봉, 정리, 마무리의 모든 공정을 한 공장에서 처리하는 공장을 말한다. 본공장은 패턴, 재단, 재봉까지 한공장 안에서 처리하는 공장을 말한다. 재봉하청공장은 본공장에서 재봉 일감만을 받아 진행되는 소규모공장으로 소규모 공간에서 1~2인이나 부부중심으로 재봉틀만 놓고 작업이 가능하고,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의류봉제 생산 과정 중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 재봉(미싱)공정이고 특별한 장비 없이 재봉틀(미싱기)만 있으면 작업이 가능하여 1~2인의 생계형 영세 작업장이 많다(장미진, 2016). 정리(마도메)공장은 재봉 과정에서 재봉틀로 할 수 없는 실밥처리나 시침질 등 손바느질이 필요한 단추달기, 옷의 안감처리, 부자재 및 패드 등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공장을 말한다. 마무리(시아게) 공장은 옷의 마무리 과정으로 다림질, 포장 등 납품의 완성품을 작업하는 과정을 말한다. 의류봉제에선 패턴, 재단, 재봉까지의 공정을 1차 공정으로, 정리(마도메)와 마무리(시아게) 공정은 2차 공정으로 나누고 있다.

3.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선정

소공인클러스터의 연구대상은 창신 및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로 선정하였다. 2017년 전국사업체현황 조사를 활용하여 서울시 제조업체수를 확인한 결과, 의류봉제업(25%), 인쇄 및 기록매체업(12.8%), 금속가공제품제조업(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창신 및 장위 지역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가 갖는 상대적 특화도, 지리적 집중도를 확인하기 위해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이하 LQ)를 사용하였다(박소현·이금숙, 2016). LQ지수 선정을 위해 서울시의 창신 및 장위 지역 의류봉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중분류상의 봉제의복 제조업(141)의 사업체 수로 선정한다. LQ값은 1을 기준으로 하여 $LQ_i > 1$ 이면 i 지역 α 산업이 전체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LQ_{i\alpha} = (E_{i\alpha} / E_i) / (E_{\alpha} / E)$$

서울시의 창신 및 장위 지역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LQ지수와 상위 20위까지의 LQ지수는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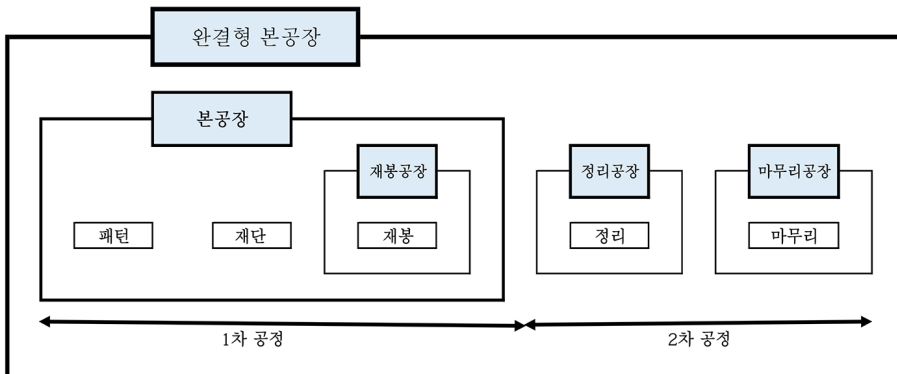


그림 1. 의류봉제 공장 분류

출처: 장미진(2016)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표 2. 지역별 LQ지수

지역		LQ지수	순위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	종로구 창신2동	26.93	1
	종로구 송인1동	16.79	2
	종로구 창신3동	7.29	18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	성북구 장위2동	16.45	4
	성북구 장위1동	12.97	6
	성북구 장위3동	9.70	12
그 외	중구 신당5동	16.76	3
	중구 동화동	15.74	5
	중랑구 망우3동	12.04	7
	중랑구 면목2동	11.76	8
	성동구 왕십리2동	11.60	9
	중랑구 면목본동	10.55	10
	중랑구 면목5동	10.14	11
	금천구 독산4동	9.15	13
	중랑구 면목7동	8.83	14
	중랑구 면목4동	8.45	15
	성북구 보문동	7.38	16
	금천구 독산3동	7.33	17
	종로구 송인2동	6.05	19
	종로구 창신1동	5.58	20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7년) 재편.가공

LQ지수를 바탕으로 상대적 특화도와 지리적 집중도를 파악하여, 지역별 3개 동을 분석한다. 창신 의류봉제 지역은 창신 2동, 송인 1동, 창신 3동으로 장위 의류봉제 지역은 장위 1, 2, 3동으로 선정하였다.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두 지역 모두 서울시가 지정한 미래유산⁷⁾ 부문 산업분야에 2013년 선정되어, 전통적으로 의류봉제를 대표하고 있다. 그리고 두 지역에는 소공인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도 자리잡고 있다.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두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두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비교할 수 있다.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상대적 특화도와 지리적 집중도, 전통성, 서울시의 대표적인 제조업으로 선정하였다.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 현장에서 상호

작용하는 여러 형성요소들의 심층분석을 위해 연구지역에서 의류봉제를 진행하는 소공인들을 창신지역 7명, 장위 지역 7명씩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4명의 소공인들과 직접 대면하여 최소 1회 이상,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섭외방식은 직접 섭외와 소공인 지원정책 경험이 있는 소공인의 인터뷰를 위해 스노우볼 방식을 함께 사용하였고, 2019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문헌조사와 총 14명의 소공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표 3에 설명하였다.

2) 연구방법

창신 및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에 관한 특성은

표 3. 인터뷰 대상 목록

구분	사례	인터뷰 대상	지역	연령	성별
주 인터뷰	창신	본공장(A-1)	종로구 창신2동	60대	남
		디자이너(A-2)	종로구 창신2동	30대	여
		본공장(A-3)	종로구 송인1동	60대	남
		재봉하청(A-4)	종로구 창신3동	50대	남
		재봉하청(A-5)	종로구 송인1동	50대	여
		시야계(A-6)	종로구 창신2동	60대	남
		하도메(A-7)	종로구 창신2동	60대	여
	장위	본공장(B-1)	성북구 장위2동	60대	남
		디자이너(B-2)	성북구 장위2동	40대	여
		본공장(B-3)	성북구 장위1동	50대	여
		재봉하청(B-4)	성북구 장위1동	50대	여
		재봉하청(B-5)	성북구 장위3동	60대	남
		시야계(B-6)	성북구 장위2동	60대	남
		하도메(B-7)	성북구 장위2동	60대	여

Capello(1999)와 황주성(2000)의 연구를 토대로 형성요소를 표 4와 같이 국지화, 네트워크/착근성, 혁신시너지/집단학습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된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특성을 클러스터의 발전단계에 적용하여 그림 2와 같이 두 지역의 현재 발달단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1) 국지화(localization)

기존 연구를 통해 의류 봉제 소공인의 경우, 동종업체의 집적은 LQ지수를 활용하여 상대적 특화도와 지리적 집중도를 분석한다. 숙련된 노동력 확보에서 숙련된 노동력은 해당 업무의 7년 이상의 종사자로 진행한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미싱사의 경우, 2년 정도 시다⁸⁾를 하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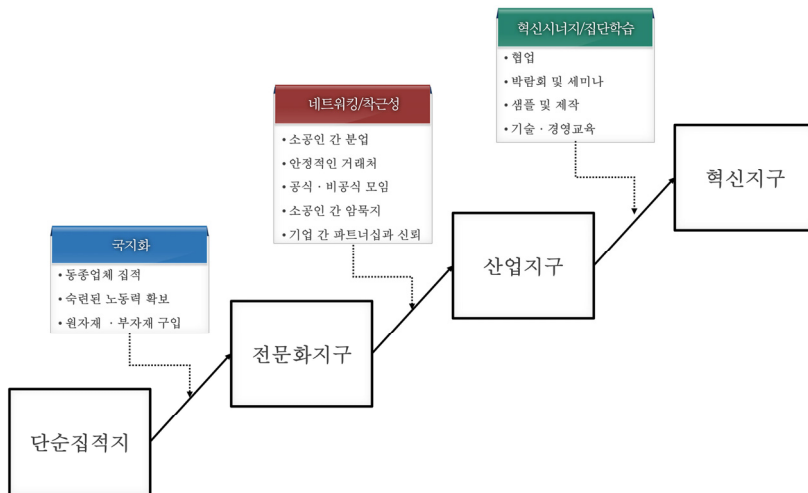


그림 2.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 분석틀
출처: Capello(1999)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표 4. 소공인클러스터 형성요소

형성요소	내용
국지화	동종업체 집적
	숙련된 노동력 확보
	원자재·부자재 구입
네트워킹/ 착근성	소공인 간 분업
	안정적인 거래처
	공식·비공식 모임
	소공인 간 암묵지
혁신시너지/ 집단학습	기업 간 파트너쉽과 신뢰
	협업
	박람회 및 세미나
	샘플 및 제작
	기술·경영 교육

출처: 황주성(2000)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미싱사로 돼. 미싱사에서 5년 이상은 해야 어느 정도 일을 하지(A-3).”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의류 제작시 필요한 원자재는 대부분 원단을 말하며 부자재는 미싱실, 지퍼, 단추, 바늘, 버클, 초크 등으로 이루어진다. 원자재 및 부자재를 구입하는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2) 네트워킹⁹⁾/착근성(Networking/Embeddedness)

소공인 간 분업은 생산 특성상 분공장, 정리(마도메)공장, 마무리(시아계)공장의 진행 현황과 일이 집중되는 시기에 소공인 간 서로 분업하는 유연한 분업도 포함하여 분석한다. 안정적인 거래처는 현재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의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공식·비공식 모임은 클러스터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임의 주체가 있는지, 어떤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지 등 모임의 형태와 방향성을 분석한다. 기업 간 파트너쉽과 신뢰는 외부적으로는 고객 또는 디자이너와 내부적으로는 클러스터에 형성되어 있는 소공인 간의 파트너쉽과 신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소공인 간 암묵지는 클러스터에 속한 소공인만의 지식과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분석한다.

(3) 혁신시너지/집단학습(Innovative synergy/Collective learning)

기존 연구를 통해 의류봉제 소공인의 경우, 협업은 새로운 매출 증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협업의 주체가 디자이너 중심인지 소공인 중심인지를 분석한다. 협업의 주체로 인하여 협업의 방식과 방향성이 다르게 진행되며, 발생하는 문제점 또한 다르게 진행된다. 박람회 및 세미나에서는 소공인이 참여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샘플 및 제작에서는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살펴본다. 단순히 지원금액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지원금액이 높을수록 소공인과 샘플 참여의 기회와 횟수가 많아 지원금으로 분석한다. 기술 및 경영교육은 소공인들이 진행하는 교육에는 어려움이 있어 두 지역에 위치해 있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소공인에 대한 교육을 비교분석한다.

4. 분석결과

1) 소공인클러스터의 형성요소 분석

(1) 국지화

동종업체 집적은 LQ지수로 확인할 수 있다. 창신지역의 소공인클러스터의 LQ지수는 창신2동이 26.93, 송인1동이 16.79, 창신3동이 7.29로 나타났으며, 장위지역의 소공인클러스터는 장위2동이 16.45, 장위1동이 12.97, 장위3동이 9.70으로 나타났다. LQ지수는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창신 지역의 소공인클러스터가 장위 지역의 소공인클러스터보다 높게 나타났다.

“창신동은 동대문시장 근처 큰 공장이 없어지고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작은 규모 공장을 만들었지. 아무래도 동대문시장이란 가까우니까, 일감 가져오기도 편하고, 옷 배송하기도 편하지”(A-3)

표 5. 창신과 장위 지역 LQ지수

연도	지역	창신지역			장위지역		
		창신2동	창신3동	송인1동	장위1동	장위2동	장위3동
2017		26.93	7.29	16.79	12.97	16.45	9.70
2016		27.29	7.53	19.39	13.82	14.51	8.73
2015		23.33	7.26	15.48	11.60	14.52	8.27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5~2017년) 재편·가공

“장위동은 청계천 쪽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이곳으로 많이 왔지.”(B-1)

국지화에서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정리하면, 동종업체 집적에 있어서는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가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종업체의 집적이 클수록 기업 간 분업과 연계는 제조, 제작, 개발 등과 같은 생산적 기능 혹은 활동에서 전형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권오혁, 2017).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집적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청계천의 발전으로 인하여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창신동과 송인동 지역보다 저렴한 지역인 장위동에 집적하게 되었다.

숙련된 노동력 확보에 대해서는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 두 지역 모두 주로 주변 지인들을 통해 7년 이상의 숙련된 노동력 구인을 진행하였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구인광고를 내거나 동네 전단지 및 베틀신문 등을 활용하여 숙련된 노동력을 원활히 확보하였다.

“이쪽 일을 오래하다 보니 대부분이 한 다리 건너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지. 사람 구할 때도 주변 지인을 통해 찾는 것이 제일 좋아.”(A-1)

“요즘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구인 광고해서 사람 구하지. 근데 인건비가 비싸서 일이 많을 때는 일당으로 일하는 사람 부르지. 전화만 하면 다음날 바로 와.”(B-5)

원자재 및 부자재 등 구입에 대해서는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 모두 동대문종합시장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거래처를 사용하고 있었다. 원자재는 주로 옷의 원단을 의미한다. 자체 브랜드가 있는 소공인은 동대문종합시장에서 원하는 원단을 구입한다. OEM 방식일 때는 주문자가 원단을 구매하여 보내준다. 동대문종합시장이 원단을 주로 판매한다면 인근의 동화시장에는 옷의 단추나 버클 등 부자재를 판매하고 있다. 동대문 종합시장 인근에는 특화된 시장들이 형성되어 있다.

“미싱실이나 미싱기를 같은 것은 동대문 근처에 있는 거래처에 전화하면 보내주던가 아님 마실 나가는 길에 들려서 사지. 요즘은 원청에서 원단이랑 단추랑 잡다한 것을 다 사서 보내주기 때문에 우린 실이나 기본적 인 것만 사면 돼.”(A-3)

국지화에서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정리하면, 표 6과 같이 동종업체 집적에 있어서는 LQ지수로 확인한 결과, LQ지수 차이가 나타났지만, 두 지역 모두 타 지역에 비해 LQ지수가 높았다. 숙련된 노동력 확보와 원자재 및 부자재 구입에 있어서 두 지역은 공통된 점을 나타내고 있다.

(2) 네트워크/착근성

소공인 간 분업에 대해서는 두 지역의 소공인클러스터에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옷의 생산과정에서 있어서 본공장(마도메)공장, 마무리(시아계)공장들의 협업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일이 집중되는 시기에

표 6. 창신 및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 국지화 비교

핵심요소		창신	장위
국지화	동종업체집적 (LQ지수)	창신2동(26.93), 송인1동(16.79), 창신3동(7.29)	장위2동(16.45), 장위1동(12.97), 장위3동(9.70)
	숙련된 노동력확보	(공통) 주로 주변 지인들을 통해 구인 (공통) 동네 전단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지역신문(벼룩신문) 등 활용	
	원자재·부자재 구입	(공통) 동대문종합시장, 평화시장, 동화시장 등 쉽게 구입	

소공인 간 서로 분업하는 경우, 계약서의 작성 없이 구두로 합의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우리같이 시야계하는 사람은 본공장에서 마도매를 거쳐 시야계 하려 오지. 어떻게 보면 옷 만들 때 당연한 순서처럼 진행되는 거야.”(A-6)

“오늘 한가하다기도 내일 바빠질 수 있어. 일이 갑자기 몰려서 바쁠 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 물량은 인근 공장으로 보내서 일이 하지 이쪽 일이 아무래도 유행을 타니까.”(B-6)

안정적인 거래처에 대해서는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 모두 동대문시장 인근의 거래처가 가장 많았다. 밀리오레, 두타, apm 등 동대문 소규모 매장에서 소량으로 제작하는 업체와 인터넷쇼핑몰, 청평화시장, 개인 브랜드 매장 등 제작을 의뢰하는 거래처가 많았다.

“예전처럼 밀리오레나 두타, apm에서 장사가 잘 안 되니, 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 동대문 물량이 가장 많긴 하지만 인터넷쇼핑몰이랑 개인 브랜드샵에서도 의뢰가 들어와.”(A-1)

“옛날 2002년 월드컵 때는 엄청 좋았지. 잠도 안 자고 일 했잖아. 근데 요즘은 영 안 좋아. 동대문 쪽 일이 많이 줄었어. 쇼핑몰 하는 사람들도 간혹 오고”(B-7)

공식·비공식 모임은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두 지역 모두 클러스터 내부의 의류봉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소공인의

권익과 경쟁력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다. 비공식 모임은 산악회, 골프회, 낚시회 등 각종 모임으로 지역내 소공인들은 월 1~4회, 10년 이상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공인 간 신뢰가 잘 구축되고 있어, 소공인 간 착근성은 높은 편이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가 소규모 업체이다 보니, 서로서로 얘기하면서 정보 교환이나, 옷의 유행, 일감 등을 말하곤 하지. 박람회 참가나 각종 의류 관련 행사에 참여하려면 잘 모르니까 해 본 사람들 얘기를 듣곤 하지.”(A-7)

“여긴 다들 어려서부터 일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옛날에는 진짜 힘들었어. 서로서로 잘 아니까 모임도 같이 하고 친목계도 하고 가족같이 지내고 있지.”(B-6)

기업 간 파트너십과 신뢰에 대해서는 두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 모두 옷 제작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 영향이 컸다. 고객이 제작된 옷의 만족도가 높으면, 계속 의뢰를 하고 제작업체를 쉽게 변경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고객들은 제작 단가보다는 옷의 퀄리티(Quality)를 생각했으며,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고객들은 낮은 단가로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공인 간 파트너십과 신뢰는 매우 높았다. 서로의 대해 옷 제작 및 완성도의 자부심이 강했다.

“옷 제작 단가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는 단가에 민감하지만 옷만 잘 만들어 주면 별 신경을 안 써.”(A-5)

“옷 결제받을 때가 제일 힘들어. 대부분이 회사가 어렵다고 가격 좀 깎아 달래. 그 땀 참 난감하지. 요즘 들어 다 깎아 달래서 힘들어 죽겠어.”(B-3)

소공인 간 암묵지에 대해서는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 모두 가격적인 부분과 봉제 기술의 공유 부분이 존재하였다. 가격적인 부분은 자세한 금액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봉제 제작가격의 인상 정제로 인하여 제작 기본 단가표와 객공 단가표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봉제 기술의 공유 부분은 자주 바뀌는 옷의 유행과 사람의 체형, 원단 및 부자재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봉제 기술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

“옷의 유행과 사람의 체형이 계속 바뀌니, 그와 맞는 봉제 기술들도 바뀌지. 어떻게 하면 옷 핏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지 서로 얘기하면서 좋은 기술을 서로 함께 이야기하지.”(A-3).

“요즘 일하면서 적자 나는 곳이 더 많아. 봉제가격이 10년째 오르지 않아서, 매우 힘들어. 물량은 계속 줄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너무 힘들어.”(B-1)

네트워킹/착근성에서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정리하면, 표 7과 같이 소공인 간 분업과 안정적인 거래처, 공식·비공식 모임, 소공인 간 암묵지는 두 지역 모두 비슷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기업간 파트너쉽과 신뢰에서는 고객의 요구 사항으로 인해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옷의 퀄리티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단가를 우선으로 하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3) 혁신시너지/집단학습

협업은 새로운 매출 증대를 위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이다. 인터넷쇼핑몰과 개인 디자이너들의 의류 제작 증가로 다품종소량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젊은 디자이너와의 협업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기존의 단순한 의상제작이 아닌 디자이너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의상이 제작되고 있다. 젊은 디자이너들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의상을 제작하기 위해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를 찾고 있다. 협업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고, 자발적인 협업

표 7. 창신 및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 네트워킹/착근성 비교

핵심요소		창신	장위
네트워킹/착근성	소공인 간 분업	(공통) 생산과정 원활히 진행	
		(공통) 협력관계	
	안정적인 거래처	(공통) 밀리오레나 두타 등 동대문시장 소규모 업체	
		(공통) 인터넷 쇼핑몰이나 개인 매장	
		(공통) 소공인클러스터에 위치한 본 공장에서 봉제 의뢰	
	공식·비공식 모임	(공통) 대부분 10년 이상 거래처	
		(공통) 산악회, 골프회, 낚사회, 배드민턴, 당구회 등	
소공인 간 암묵지	(공통) 10년 이상 함께 해 온 분들이라 상당히 끈끈함		
	(공통) 소공인 간 기본 단가표 등		
기업 간 파트너쉽과 신뢰	(공통) 봉제 기술 공유		
	제작 단가 보다는 실력	낮은 단가 제작 의뢰 고객 증가	
		(공통) 디자이너 또는 고객의 만족도	

과 소공인지원센터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젊은 디자이너와의 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에서는 협업에 대해 차이가 나타났다.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경우, 젊은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젊은 고객층의 확보를 위해 디자이너의 요구사항과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옷을 제작함으로써 다른 디자이너와 함께 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었다. 반면,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에서는 소공인 중심으로 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소공인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 옷 제작상의 편리함과 단순한 생산방식을 취해 디자이너에게 제작상 편리한 디자인으로 변경을 요청하였다. 완성된 옷의 브랜드 라벨 부착시 소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젊은 디자이너의 디자인 변경과 브랜드 부착의 문제점이 다수발생하여 협업에 대해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났다.

“디자이너랑 함께 하는 경우, 우린 디자이너가 원하는 것이면 웬만하면 다 해주지. 디자이너가 우리를 찾는 이유가 뭐겠어. 본인의 디자인을 잘 만들어 주는 곳이 필요하니까. 정말로 봉제가 안 되는 부분은 디자이너와 상의해서 진행하지. 근데 안 되는 부분은 거의 없어.”(A-1)

“친구소개로 왔어요. 여긴 옷의 핏이 살아 있어요. 디자인만 하다 보니 옷 제작할 때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때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세요. 요즘은 저처럼 소량으로 제작해서 파는 사람이 많아졌어요.”(A-2)

“우린 기술이 있으니, 우리 물건을 팔아 줄 수 있는 디자이너가 필요해.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 주면 우린 생산해서 납품하면 되는데, 요즘 젊은 디자이너들은 옷 디자인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힘들어.”(B-3)

“젊은 디자이너랑 협업은 어려운 것 같아.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 디자이너가 원하는 것이 다른 것 같아.”(B-4)

박람회 및 세미나에 대해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

클러스터에서는 참여의식에 차이가 있었다.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전통적으로 형성된 곳이라 예전부터 봉제와 관련된 박람회 및 세미나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고, 참여로 인한 타 지역에 창신의 소공인을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로 활용하여, 많은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보였다. 반면 장위 소공인클러스터는 박람회 및 세미나의 참여가 일부 지역내 소공인만을 위한 행사이며, 개인적으로 볼 때 소공인의 경제적 이득이 없어서 소극적 참여의식을 보였다.

“봉제하면 창신동 아니겠어. 여기서는 봉제 관련 행사랑 동대문패션거리 박람회 등 많은 행사가 있어. 기회가 되면 행사에 직접 나가고 싶고, 박람회 할 땐 응원차원에서 몇 번 가 봤지.”(A-4)

“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힘들어. 근데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박람회랑 알뜰시장에 참가하는 업체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참여해도 좋은지 모르겠어.”(B-1)

샘플 및 제작에 대해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에서는 창신이 장위보다 높은 지원금을 확보·시행하고 있었다. 단순히 지원 금액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소공인과 디자이너의 협업에 대한 횡수나 규모면에서는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가 앞서고 있었다.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디자이너와 함께 샘플을 진행해 주었지. 패턴도 짜고, 재단도 해 주고, 원단 파는 곳도 알려주고, 샘플 옷까지 만들어 주었지. 생각보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디자이너랑 재밌게 일했지.”(A-4)

“센터에서 하는 샘플 패턴 제작 진행 하려면 디자이너와 같이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디자이너랑 같이 하기 힘들어. 디자이너가 여기 영세업체까지 찾아와서 하긴 힘들지.”(B-5)

기술·경영교육에 대해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에서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공인들을 위한 기초 교육과 업무스킬을 높이는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다. 두 지역의 교육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교육 진행 주체가 소공인이 아니다 보니,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무관심인 경향을 보였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무료 교육을 해, 미싱이랑 패턴 같은 것은 다 아는 내용이라 나는 안 가. 근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너무 무심한 것 같아. 교육보다 일 좀 생기게 해 줬으면 좋겠어.”(A-6)

“센터에서 미싱 교육이랑 패턴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미 아는 내용인데 가서 뭘해. 그냥 그 돈으로 다른 거 하면 안 되남.”(B-4)

혁신시너지/집단학습에서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정리하면, 표 8과 같이 기술·경영교육에 대해서는 두 지역 모두 유사한 교육

으로 진행되는 공통점이 있었다. 반면, 협업은 디자이너와 소공인이 함께 진행함에 있어 이끌어 나가는 주체의 차이가 나타났다.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디자이너 중심으로,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소공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박람회 및 세미나에서는 참여 의식의 차이가 있었다.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나,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샘플 및 제작에서도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가 높은 지원금액을 확보·시행하고 있었다.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공통된 형성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다른 형성요소들도 찾아볼 수 있다. 같은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라고 해도 각 지역적인 특성과 소공인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 소공인클러스터의 발달단계과 지원정책

(1)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 발달단계

창신 및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형성요소를

표 8. 창신 및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 혁신시너지/집단학습 비교

핵심요소		창신	장위
혁신시너지 /집단학습	협업	디자이너 중심	소공인 중심
		맞춤 서비스	효율성, 편의성
	박람회 및 세미나	적극적 참여의식	소극적 참여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스마트봉제공장 견학 · CISMA 2019(상해 국제 봉제기기 전시회) · 선택메가쇼 · MADE in JONGNO · 2019 상하이 치크 패션 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패션 월드 도쿄(소싱 페어 박람회) · 2019 K-Fashion Trade Show(베트남) · PIS(Preview in Seoul 2019)수주박람회(국내) · 2019 FW CHIC SHOW(중국)
샘플 및 제작	시제품 패턴제작 지원사업 (18,000천원 지원)	집적지 공동브랜드 판매 협업화 지원 (7,990천원 지원)	
기술·경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공인 세무노무 교육 · 소공인 의류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 소공인 CAD/CAM 재단 지원사업 ·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 · 소공인 공동 개발, 마케팅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턴기술교육 · 패턴컨설팅지원 · 작업환경개선지원 · 소공인혁신교육 	

발달단계에 적용해 보면, 국지화에서의 동종업체 집적은 LQ지수를 확인한 결과,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산업특화도를 확인할 수 있다. 숙련된 노동력 확보에 있어서는 지인의 추천과 구인광고 등을 통해 어려움 없이 손쉽게 확보하였다. 원자재 및 부자재 등 구입에 있어서는 동대문종합시장 주변에 형성된 거래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네트워킹/착근성에서의 소공인 간 분업은 본공장, 정리(마도메), 마무리(시아게)의 공장들의 분업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안정적인 거래처는 동대문패션타운의 거래처와 소품물, 개인샵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식·비공식모임의 착근성은 매우 높은 편이며, 기업 간 파트너십과 신뢰에 대해서도 높은 편이었다. 소공인 간 암묵지에 대해서는 모두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혁신시너지/집단학습에서는 다르게 나타났다.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경우, 디자이너의 중심으로 형성된 반면,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소공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협업을 진행함에 있어 창신은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최대한 살려 진행하였지만, 장위는 소공인의 일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변경을 요청하였다. 이 부분은 새로운 매출에 큰 문제를 갖고 있다. 디자이너가 본인의 디자인에 표현할 수 있는 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산부분 때문에 디자인을 변경한다면 새로운 디자이너들의 유입은 힘들 것이다. 박람회 및 세미나에 대해서도 창신은 적극적인 반면에 장위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샘플 및 제작에 대해서도 창신이 장위보다 높은 지원금을 확보·운영하고 있었다. 기술경영교육에 있어서는 두 지역 모두 기초교육과 업무스킬 관련 비슷한 유형의 교육만을 진행하고 있었다.

위의 형성요소들은 분석한 결과, 표 9와 같이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국지화와 네트워킹/착근성에서는 매우 높았으며, 혁신시너지/집단학습에서는 부분적으로 낮게 나와 산업지구를 넘어 혁신지구로 다가서고 있다. 반면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산업지구까지의 국지화, 네트워킹/착근성은 형성되어 있지만, 혁신시너지/집단학습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지구에 머물러 있는 것을 판단된다.

(2)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 지원정책

현재 창신 및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지원정책은 각 지역에 위치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세무·노무 교육, 의류수출경쟁력 강화사업, CAD/CAM 재단 지원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공동 개발, 마케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패턴기술교육, 컨설팅 지원, 작업환경 개선 지원, 소공인혁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샘플 및 제작에서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시제품 패턴제작 지원 사업(18,000천 원 지원),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집적지 공동브랜드 판매 협회화 지원(7,990천 원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박람회 및 세미나에서 두 지역 모두 국내외에서 진행하고 있다. 공동브랜드에서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Vaah',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URZ'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에 지원되는 정책은 사업 명칭만 서로 다를 뿐, 지원내용에 있어서는 같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표 9. 창신 및 장위 소공인클러스터 발달단계 요약

형성요소	창신	장위
국지화	◎	○
네트워킹/착근성	◎	○
혁신시너지/집단학습	△	×
발달단계	혁신지구(진입 전)	산업지구(정체)

주: ◎: 매우 발달됨 ○: 평균보다 발달됨 △: 평균 ×: 평균 이하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공인클러스터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를 클러스터의 형성요소인 국지화, 네트워킹/착근성, 혁신시너지/집단학습으로 비교연구 하였으며,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형성요소 분석을 기반으로 발달단계를 알아보았다.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를 살펴 본 결과, 첫 번째인 국지화의 동종업체 집적에 대해서는 LQ지수로 비교한 결과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가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보다 LQ지수가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의류봉제 집적이 먼저 형성되었고, 동대문시장의 형성과 동대문패션클러스터로 인하여 의류가 완성되면 빠른 배송을 위하여 가까운 지역의 소규모 업체를 사용하는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숙련된 노동력 확보와 원자재 및 부자재 등의 구입은 두 소공인클러스터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인 네트워킹/착근성의 소공인 간 분업에 대해서는 두 지역의 모두 소공인 간 분업은 의류 생산공정과 소공인 간 유연한 분업으로 인하여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안정적인 거래처에 대해서는 두 지역의 소공인들은 기본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물량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최근 전통적 오프라인 매장과 인터넷 쇼핑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거래처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식·비공식 모임에 대해서는 두 지역의 모두 착근성을 찾을 수 있었다. 정기적으로 두 지역 모두 의류봉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소공인의 권익과 경쟁력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산악회, 골프회, 낚시회 등을 비롯하여 각종 온·오프 모임들이 10년 이상 존재하고 있었다. 기업 간 파트너쉽과 신뢰에 대해서는 고객의 만족도가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를 찾는 고객은 옷의 퀄리티(Quality)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를 찾는 고객들은 제작 단가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공인 간 암묵지에 대해서는 두 지역 모두 지역간 암묵

지가 존재하였다.

세 번째인 혁신시너지/집단학습의 협업에 대해서는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디자이너 중심으로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소공인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박람회 및 세미나에 대해서는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적극적인 반면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소극적이었다. 기술·경영 교육에 대해서는 두 지역 모두 큰 차이점이 없었다. 샘플 및 제작에 대해서는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가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보다 지원 받는 예산이 두 배 이상이어서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샘플 및 제작에 대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발달단계는 산업지구를 넘어 혁신지구로 다가서고 있다. 국지화와 네트워킹/착근성의 형성요소들은 잘 형성되었고, 혁신시너지/집단학습의 협업은 새로운 디자이너와 고객들로 인하여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와 기술·경영 교육에 다양성을 진행한다면 혁신지구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발달단계는 산업지구에 머물러 있다. 국지화와 네트워킹/착근성의 형성요소들이 잘 형성되어 있지만, 혁신시너지/집단학습의 협업은 소공인 중심의 편리성과 단순성을 추구하면 새로운 디자이너와의 협업과 고객의 증가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극적인 참여도 바뀌어야 하며, 기술·경영 교육에 있어서도 필요한 교육을 요청해야 머물러 있던 산업지구를 넘어 혁신지구로 다가갈 수 있다.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같은 업종이여도 지역적 특성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소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지원정책만 진행하고 있다. 각각의 소공인클러스터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지원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원정책을 해야 한다.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같은 업종이긴 하지만 고객의 특성, 협업의 주체, 소공인의 참여 의식 등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매년 동일한 지원정책이 아닌 정책의 다

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의류사업의 유행과 변화에 빠르게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 셋째,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새로운 판매처 확보를 위해 마케팅을 전담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영세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판매처 확보가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특성과 발달단계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두 클러스터의 상황을 판단하고 더욱 발전된 소공인클러스터가 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연구대상은 대덕IT클러스터, 향만클러스터, 농업클러스터 등 분석이 대규모의 단지를 조사하였지만 본 연구는 도시 집적화가 이루어진 의류봉제 소공인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로 인하여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데 기여가 되었으면 한다.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을 직접 방문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함으로써 분석결과를 검증받고자 하였다. 실증 사례 위주로 진행하였고,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으나, 다양한 지역의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서울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를 확인하고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

- 1) 장영우, “힘든 사업주에게 임금 받는 노동자들은 더 힘들 것,” 오마이뉴스, 2019년 1월 16일.
- 2) 집적지의 개념은 같은 업종의 소공인들이 50개(특별·광역시), 40개(시), 20개(군), 이상이 밀집한 읍·면·동(산업단지 제외)을 의미한다(중소벤처기업부, 2017).
- 3) 이방인, “소상공인 지원정책,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LEEBANGIN, 2019년 5월 18일.
- 4) 2012년 450억 원, 2013년·2014년 3,000억 원, 2015년 3,500억 원, 2016년·2017년·2018년 4,100억 원, 2019년·2020년 4,500억 원으로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5) 마도메는 일본어 まとめ(纏め)로 ‘정리함, 한데 모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 6) 시아게는 일본어 しあげ(仕上(げ))로 ‘마무리, 완성, 됴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 7) 서울미래유산의 산업노동분야에 창신동봉제마을과 의복제조업(장위동일대)는 2013년에 선정되었다. 창신동 봉제마을은 종로구 창신5나길 17일대로, 의복제조업(장위동일대)는 장위로 126 일대이다.
- 8) ‘시다’는 일본어 ‘시다바리’에서 유래된 말로 ‘일하는 사람 옆에서 그 일을 거들어 주는 사람’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여기서는 미성사의 일을 거들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9)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경제학에서 네트워크는 기업 간의 관계 중 시장과 계층의 중간 형태를 띠는 것만을 의미하는 개념이고(김선배, 2001) 또 관계 자체보다 그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여기서는 ‘관계’와 ‘행위’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네트워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참고문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http://balance.go.kr>(최종열람일: 2020년 2월 21일).
- 권성택·김상욱, 2006, “첨단산업클러스터 형성요인들간의 인과관계분석,”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7(2), pp.133-148.
- 김선배, 2001, “산업의 지식집약화를 위한 혁신체제 구축 방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4(1), pp.61-76.
- 김정훈·성영홍, 2018, “도시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사례 연구-서울시 도시형 소공인을 중심으로,”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구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논문집) 55, pp.149-161.
- 김철민·김녹현, 2017, “신발소공인 산업의 실태분석 및 정책 지원 방향: 부산진구 범천동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2(6), pp.47-59.
- 김철민·신승만, 2015,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관한 小考: 비판적 고찰,” 산업혁신연구 31(4), pp.175-205.
- 김철민·정중영, 2016, “도시형 소공인 개념, 현황 및 지원정책에 관한 소고,” 중소기업연구 38(3), pp.119-133.
- 김주인·백낙기·이재광, 2014, “AHP를 이용한 봉제·의류제조업의 해외입지선정 모형 및 적용사례,” 대한안전

- 경영과학회지 16(3), pp.377-388.
- 남기범, 2004, “클러스터 정책실세의 교훈,”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3), pp.407-443.
- 남윤형, 2013, “도시형 소공인 지원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박소현·이금숙, 2016, “서울대도시권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지적 특성과 관련 업종별 고용기회 예측,”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4), pp.694-711.
- 박진용·신승만, 2013, “제조업 핵심 공급자로서의 도시 소공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무역연구 9(7), pp.473-495.
- 소상공인정책연구소·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2016, 중소기업 소공인 일자리 70만개 창출과 경제민주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튼튼한 바닥경제를 위한 토론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최종열람일: 2020년 2월 21일).
- 신혜원, 2011, 일본의 장인(匠人)정신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갑모, 2013,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 Conferences, pp.225-239.
- 윤정호·정연대·김영수, 2018, “문래 기계·금속 집적지의 소공인 기술혁신을 위한 협업모델 및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3, pp.126-153.
- 이관률, 2005, 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의 특성과 영향구조에 관한 연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사례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철우, 2011, “대도시 도심 제조업 집적지의 형성과정과정과 존립기반: 대구시 수제화 산업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4), pp.506-523.
- 장미진, 2016, 사회관계망 분석을 이용한 창신패션클러스터의 협력네트워크 유형,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봉현, 2012, “소공인의 실태와 활성화 과제,” 신안보연구 172, pp.141-173.
- 조영석, 2005, “산업단지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형성전망과 과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7, pp.73-90.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최종열람일: 2020년 2월 21일).
- 최병훈·조현석, 2010, “산업클러스터와 혁신-사회적 자본과 구조적 요인의 영향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9(3), pp.109-137.
- 최태환·윤병섭, 2016,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 환경불확실성, 산업클러스터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효과,”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pp.1-32.
- 통계청, <http://kostat.go.kr>(최종열람일: 2020년 2월 21일).
- 한구영, 2017, 클러스터의 진화-동대문시장 패션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주성, 2000, “강남·서초지역의 산업지구적 성격구명을 위한 실증연구,” 지역연구 16(1), pp.1-22.
- 황주성, 2004, “대덕 IT 클러스터의 구조와 특성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3), pp.359-384.
- Braczyk, H. J., Cooke, P. N. and Heidenreich, M.(eds.), 1998, *Regional innovation systems: the role of governances in a globalized world*, London: Psychology Press.
- Capello, R., 1999, “Spatial transfer of knowledge in high technology milieu: learning versus collective learning processes,” *Regional Studies* 33(4), pp.353-365.
- Cooke, P., 1998, “Introduction: origins of the concept.” Braczyk, H.-J., Heidenreich, M. and Cooke, P.(eds.), *Regional innovation systems*, London: UCL Press, pp.2-27.
- Gordon, I. R. and McCann, P., 2000, “Industrial clusters: complexes, agglomeration and/or social networks?,” *Urban Studies* 37(3), pp.513-532.
- Malecki, E. J. and Paivi, O., 1999, *Making connections: technological learning and regional economic change*, Farnham: Ashgate Publishing Company.
- Marshall, A., 1890, *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n (1920)*, London, Mcmillan.
- Porter, M. E.,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with a new introduction*, Free Pr.
- Porter, M. E., 1998,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6(6), pp.77-90.
- Rosenfeld, S., 1997, “Bringing business clusters into the mainstream of economic development,” *European Planning Studies* 5(1), pp.3-23.

교신: 정영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공공정책전공, 전화: 02-970-6798, 이메일: jys2213@hotmail.com

Correspondence: Youngsu Jung,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and Information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32, Gong-

neung-ro, Nowon-gu, Seoul 01811, Korea, Tel: 82-2-970-6798, Email: jys2213@hotmail.com

최초투고일 2020년 03월 10일

수정일 2020년 03월 19일

최종접수일 2020년 03월 24일